

# 조선왕조의 상징공간과 박물관

이성시

와세다대학문학부

## 머리말

식민지시대의 한국고고학의 제일선에서 활약한 藤田亮作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보존사업은 조선반도에 일본인이 남긴 최고의 자랑할 만한 기념비의 하나이다」라고 했다①. 일본에 의한 고적조사와 보존사업은 이미 통감부시대 (1909년)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되었으며 대한제국의 도지부가 野貞를 초빙하여 조선반도전토의 고건축조사를 위탁하면서부터 시작된다②. 일한합병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1916년에 고적과 유물보존규칙을 발표했는데 고적조사위원회를 조직한 이래로 조선반도의 고적조사는 총독부박물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번의 보고는 1909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36년에 걸친 일본의 고적조사보존사업에 있어서의 유물전시와 미술품의 전시에 관계한 박물관·미술관의 설치과정을 통해 그에 관한 성격의 단면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유의할 것은 근대 일본이 조선왕조에 대한 식민지화의 과정 중 설치한 이왕가박물관, 그리고 일한합병 후 고적조사의 통할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박물관 및 이왕가박물관으로부터 그 기능을 옮겨받은 이왕가미술관, 그리고 세 곳의 박물관·미술관이다. 이 건물들은 일본정부의 명확한 의도에 의해 조선왕조말기의 왕궁(왕이 거하는 곳)이었던 곳에 세워진 것이 공통점이다.

이 건물들이 세워진 역사적경위를 명확히 하고 당시의 일본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가능한 한 밝히고 싶다.

## 1. 창경궁(창덕궁동원)의 이왕가박물관(1909)

근대일본은 식민지통치이전에 있어서 이미 한국내에 박물관을 설립할 것을 의도했다. 그것이 이왕가박물관이며 이것은 궁내부박물관, 창덕궁박물관, 이왕가박물관등으로 불렸다③.

설치장소는 현재의 창경궁으로 1907년에 설립안이 세워졌다. 창경궁은 서쪽으로 창덕궁과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과거 동궁이 있었으며 이것을 통틀어 동궁궐이라 했다. 조선왕조후기에는 경복궁을 북궁궐이라 하였고 경희궁을 서궁궐이라 하여 이것을 모두 삼궁궐이라 칭하였다.

동궁궐의 동쪽에 위치한 창경궁은 1484년에 창건되었으나 원래 왕비의 거처로 이용된 별궁이었다. 이 창경궁에는 동쪽으로 홍화문이 있고 정면으로 나가면 그 끝에 정전인 명정전이 동쪽으로 향하여 세워져 있다. 동면을 하고 있는 궁전은 조선왕조의 궁전 중에서도 극히 보기 드문 것이었다. 창경궁의 서쪽에 인접하고 있는 창덕궁은 임진왜란 때 경복궁과 더불어 소실되었으나 1607년 재건돼, 1865년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여 왕궁을 옮길 때 까지 200년 이상 왕궁으로서 존재하였다. 나중에 언급할 내용이나 1907년에는 막 즉위한 순종이 창덕궁으로 옮겨 와 다시 왕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 창경궁에 건축된 이왕가박물관설립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1907년 11월, 대한제국궁내부차관 小宮三保松가 창경궁내에 박물관과 식물원을 병설하고 싶다는 뜻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궁내부대신 이윤용에게 제의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듬해 9 월에는 박물관, 동물원?식물원사업의 관장부국을 설치하고 사업의 완비를 도모한 후에 순종황제, 伊藤博文통감 등이 박물관을 관람했다④.

이 시점에서 명정전등 창경궁내의 건조물을 보수하고 응급적으로 정비하여 진열관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1911년에는 명정전의 북쪽에 인접하고 있는 낮은 언덕에 박물관본관을 신축했다. 그 구조는 일본풍의 기와로 만든 2층 건물이었다. 1?2층 중앙에는 홀이 있어 좌우로 두 방씩 여섯 방으로 되어있었다⑤. 이 관은 1938년 덕수궁에 이왕가미술관이 창설됨과 동시에 장서각으로서 계승되었으나 그 후 철거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1992년 해체되었다⑥.

이 이왕가박물관에 대한 설립의 경위와 목적에 관하여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왕직사무관이었던 末松熊彦는 그 설립의 목적을 이왕가의 일가에게 취미를 위해 제공함과 더불어 조선의 고미술을 보호수집하고자 小宮차관에게 건의했다고 한다⑦. 이것에 대해 이귀열씨는 伊藤博文에 의한 문화적침략계획의 의도를 받은 이완용이 계획실행한 음모였다고 반론하고있다⑧.

어찌하였든 여기서 우선 확인해야 할 사실은 박물관설립의 제의가 등장된 시기의 문제이다. 박물관설립 바로 전 1907년 6월에 고종황제는 보호조약의 무효를 열강들에게 호소하고자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였고, 그 다음달인 7월에는 일본정부가 이 사건을 구실로 한국국내의 전권을 장악할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伊藤博文와 이완용내각은 고종에게 강요하여 황태자에게 양위를 시켰고 그리하여 순종이 즉위했다. 이때 즉위한 순종은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거취를 옮기게 되었다.

더욱이 고종의 퇴위강요에 대한 반대활동을 탄압하는 가운데 일본은 제 3차 일한협약을 맺어 차관이하의 일본인 관리를 통해 한국의 내정지배권을 확립했다.

이와 같이 1907년은 일본이 한국의 내정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해였는데 순종이 즉위해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긴 4개월 후 왕궁이었던 창덕궁의 동쪽에 인접한 창경궁에 박물관을 시작하여 동물원?식물원의 설립이 小宮에 의해 건의된 것이다.

1909년 11월에는 창경궁내에서 동물원?식물원의 개원식이 거행돼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바뀌었다. 동물원?식물원이 창립되었을 당시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200 그루의 ?는 후에 종류와 그루수가 증가되어 1924년부터는 야간?관람을 위해 창경원에 야간개장이 이루어져⑨ 하루에 5만의 관람인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下郡山誠-이왕직사무관).

창경궁은 박물관,동물원?식물원을 갖춘 공원으로써⑩ 입장료 20 전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조선왕조 왕궁으로서의 상징공간은 창경원이란 이름하에 그 모습이 일변된 것이다.

한편 근대조선의 박물관설치에 직접 관여한 것이 일본에 있어서 일본 국내의 박물관설립은 1872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설립은 1882년으로 이때에 上野공원내 부속동물원과 식물원, 그리고 신관이 설치되었었다. 담당관청은 1886년에 궁내성대신?伊藤博文에 의해 농상공부에서 궁내성으로 이관되어 1889년에 제국박물관이 되었다 (1900년제실박물관으로 개칭)⑪.

본래 일본의 박물관은 영국의 사우스켄진톤박물관을 모델로 하여 박물관의 주위를 공원으로 만들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개설함으로써 민중에게 「안목의 교화를 내려 무의식속에서 혼도시키는」 ⑫ 장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통감부에 의해 진행되어 온 이왕가박물관의 설치는 일본에서의 박물관설치로부터 정확히 20년 후의 일이었다. 조선왕조 왕궁에의 박물관설치는 그 후에도 볼 수 있다. 식민지통치기중 경복궁에 설치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창경궁의 박물관설치는 일본이 조선의 전통문화의 보호자이며 이 땅에 관리자가 된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2. 총독부박물관(1915)-경복궁

오랜 세월 식민지배의 상징으로서 그 위용을 과시했던 조선총독부청사는 1995년에 해체의 작업이 시작되어 1997년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그 모습을 감췄다. 이 총독부청사와 같이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나 경복궁의 조선총독부박물관도 철거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왕궁으로서 1395년에 창건되어 1592년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까지 왕궁으로서 위치하고 있었다. 더욱이 대원군에 의해 1865년에 재건되어 고종이 1895년에 덕수궁(경운궁)으로 옮길 때 까지 이 경복궁에는 왕궁이 있었다. 재건된 경복궁의 건물은 150 채 가까운 크기의 것이었다<sup>13</sup>.

총독부박물관설립의 경위는 1915년 9월, 경복궁내에서 개최된 조선총독부 시정 5주년기념 물산공진회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근정전 동쪽에 미술관을 건조하고 물산공진회를 이용하여 한국고대의 회화?조각?불상?불구?서적공예의 많은 물품들을 수집 진열해, 한국과거의 문화재를 한국인에게 알리기 위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14</sup>.

이 때 미술관으로 세워진 건물은 그 이듬해 부터 총독부박물관으로 이용되었다. 백악의 서양식 2층석조건물은 정면에 석단기둥을 세웠고 내부에는 중앙의 큰 홀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2방씩 전부 6방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바로 이곳에 고미술품을 전시했다. 해방 후 한국에서는 학술원?예술원의 소관시설로써 이용해 왔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97년 철거되었다.

총독부박물관이 간행한 『박물관약안내』(1931년)에 의하면 그 설립의 목적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고적조사에 의해 수집되고 정리된 확실한 자료를 진열하여 반도 2000년의 문화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되어있다.

이 박물관은 당사자에 의하면, 확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로 인한 한국문화의 근원을 분명히 하고 그 발달의 과정을 찾는 것에 편리함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시실은 「삼국시대고분출토품」 과 「낙랑태방군시대유물」의 두 방이었다고 후에 평양박물관장이 된 小泉晁生?夫는 지적하고 있다<sup>15</sup>.

이 박물관의 진열을 순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가 삼국시대에 다다르기 이전, 많은 한족이 이주해 왔으며 그곳에 한인의 식민지가 생겼다」, 낙랑태방시대부터는 「후반기는 유학의 영향과 계속된 전란 및 내부적 당쟁 등으로 산업도 공업도 쇠퇴하여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적은」 조선시대가 관람자에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있다?.

이러한 고대와 조선왕조후기에 대한 견해는 조선총독부가 진행해 온 역사편집사업과 고적조사사업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1916년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 착수하였는데 초대조선총독 寺?正毅의 「조선반도사편찬요지」에 의하면, 『조선반도사』 편찬의 주안은 먼저 일본인과 한국인이 동족임을 분명히 하고 두번째로는 고대로부터 시대가 흐름에 따라 피패?빈약함에 빠진 것을 말하고 병합에 의해 한국인이 행복을 완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논술하는 것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한편, 같은 1916년에 조선총독부는 「고적과 유물보존규칙」을 발표하고 일본에선 처음으로 고적에 대한 단속·보존·조사의 강목을 규정하는 등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설립과 더불어 고적조사사업의 법제상의 정비 및 사업의 본격적인 조직화를 진행했다.

고적조사사업은 조선사편찬이 중요시한 역사의 기원문제에 고고학상의 근거를 더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차의 양바퀴 관계라 할 수 있으며 조선지배의 정당화에 중요한 역할을 다했다. 이 두 가지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동경제국대학의 교수였던 ?板勝美였다?. ?板勝美는 누구보다도 한국역사의 기원을 문제로 품고 있었고 이 획기가 낙랑군의 설치에 있음을 반복하여 말했다. 예를 들면 1916년에 쓴 『대동강부근의 사적』에서 한국역사의 출발점을 자신의 고고학조사와 관련지으며 중국의 문명을 가장 먼저 수용한 것이 평양이고 그 땅에 중국문명이 들어옴으로 민족의 이전, 동요가 생성되어 일본민족의 기원에 과급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板는 1932년의 제1회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 「역사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를 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역설해 한국측위원의 단군조선, 기자조선의 위치에 관한 질문을 ?葉岩吉와 더불어 봉압했다?. ?板는 근대역사학과 고고학을 구사함으로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고무하는 사서에 대항하여 일한합방의 정당화를 역사편찬과 고적조사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갔던 것이다.

경복궁에 설치된 총독부박물관은 이렇게 일본의 한국지배에 관한 국가적사업의 성과를 전시하는 장으로 변해버렸다. 그곳은 조선왕조 건국 이래의 신성한 공간으로 말기에 이르러서는 왕조최후의 섭광을 가로막는 권력의 상징공간이었다.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총독부의 시정 5주년기념사업인 조선물산공진회의 전시준비로 인해 경복궁의 크고 작은 전각이 파괴되었다. 일본에 의한 공간의 재조직화는 그 장소에 새겨진 왕실의 권력을 무기력화 시켰다. 더욱이 잔치 후에 남겨진 백악의 전당은 박물관으로 이용되어 일본의 의도에 의거한 한국의 역사적유물을 전시함으로 시간과 공간의 관리자가 누구인가를 여실이 나타내주는 모뉴먼트를 만들어 예전의 성스러운 공간에 췌기를 박았던 것이다.

총독부가 발굴한 낙랑군이후의 고대유적·유물은 단국건국이래의 수구한 역사를 호소해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한국인을 향해 충격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이러할 즈음, 「조선학」이란 단어를 창출한 최남선은 고적조사사업을 보며 「어쩌면 세계인류에 의해 영원히 감사받을만한 일일지도 모르며 또한 우리도 거기에 함께 참가해 그 정도의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인 손에 의해 처음으로 조선인의 생명의 흔적이 천명된 것은 얼마나 큰 민족적 수치인가」라고 비탄했다?. 이것은 유물박물관의 전시가 갖고 있던 의미의 구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석조전동관 및 석조전신관 (이왕가미술관) (1938)- 덕수궁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으로 불리웠으나 1907년에 덕수궁으로 바뀌었다. 1895년 고종은 이곳을 왕궁으로 하였고, 재임 중 아관파천이 있긴 하였으나 순종이 즉위하여 1907년 창덕궁으로 옮길 때 까지 이곳 덕수궁에는 왕궁이 놓여졌었다.

이 덕수궁 안에 석조전이 착공된 것은 1900년의 일이며 그 후 1909년에 완성되었다. 석조전축조의 발의는 도지부총세무사로 있던 영국인 브라운에 의해 된 것으로, 설계는 영국인 기사 파아딩그가 담당했다. 기초공사와 한국인기사에 의해 진행된 석조전은 1902년 공사가 중단되어 1903년 일본의 大倉組가 청부를 맡았다. 이것이 현재 「석조전동관」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으로, 그 서쪽에 인접하고 있는 신관(석조전서관)은 1936년에 착공되어 1938년에 완성되었다. 이 신관은 창경궁에 있던 이왕가박물관 소장품 중 신라, 고구려, 조선시대의 자기품이나 회화등 만일천점이 넘는 소장품을 이전시켜 진열했으며 석조전동관과 함께 이곳을

이왕가미술관으로 개칭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왕가미술관은 1938년 6월에 개관하였으나 동시에 창경원의 이왕가박물관은 폐지되었다.

어찌하였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총독부는 1933년 10월 1일을 기하여 덕수궁을 개방하였고, 정전이었던 중화전에도 내부의 입장과 참관을 가능케 하였으며, 더욱이 석조전(동관)에 근대미술품과 이왕가소장의 조선고화를 진열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총독부는 1933년 5월로 석조전을 미술품전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개수 후의 석조전에는 이왕가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회화가 전시될 것이라는 사실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개최의 날이 가까이 올 수록 석조전의 전시는 근대일본 미술품이 주를 이뤘으며 결국 개최직전 조선미술품의 전시는 중지되었다. 이것이 석조전에 있어서 1933년부터 1943년까지 계속적으로 개최된 「이왕가 덕수궁 일본 미술품전시」이다.

藤田亮作에 의하면 이 일본미술전시는 板勝美과 이왕직장관이었던 篠田治策과의 담합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 한다. 板는 덕수궁에 건립된 이왕가미술관에 明治초기 이래의 일본 회화 조각공예의 근대작품을 남김없이 진열해, 이 전시를 10년이상 계속적으로 행했다고 한다. 그 목적은 「한국재주자의 미술의식을 높여 근대예술에 직접 접하게 하며 풍부한 생활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래 덕수궁의 이왕가미술관에 전시될 미술품은 근대일본미술이 아닌 이왕가소장의 조선고화였다. 한국인의 기대를 저버린 덕수궁의 일본미술품전시는 많은 한국인에게 불신감을 심어줬다. 무엇보다 예전의 왕궁이 미술품의 전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한 반응은 복잡한 것이었다.

시인 모운숙은 「영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아름다운 동경의 궁전으로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을」이라고 말하면서, 덕수궁이 시민에게 개방되는 것을 비판했다. (「덕수궁석조전의 일본미술을 보고(上)」 권구현 『동아일보 1933년 11월 9일』). 조선왕조의 상징공간에의 애착을 느낀 것은 모운숙 한사람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본은 창경궁에 이왕가박물관을 설치한 이후 30년 이상에 걸쳐 조선왕조의 상징공간을 근대적 시선에 의해 착실히 해체해 갔다고 할 수 있다.

## 끝으로

이번 보고에서는 일본의 통감부시대로부터 식민지통치시대에 이르기까지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에 설치된 이왕가박물관, 총독부박물관, 이왕가미술관의 설치경위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조선왕조의 권력의 상징공간인 왕궁에 박물관, 미술관을 설치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한국 내정 지배권이 확립되자 마자 창경궁내 국왕거취에 박물관이나 동물원, 식물원이 설치되고 후에는 시민에게 개방되어진 것과 같은 것은 왕조의 신성한 공간이 대일본제국의 하나의 공간으로 편입된 일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일본근대의 교화의 대상으로서의 조선인 창출이기도 했다.

한편 창경원(창경궁)의 ?는 1922년경 그 모종이 심겨졌는데 1924년에는 이 창경원을 야간공개하여 밤?개장을 시작했으며 그 이후 서울의 명물로 정착되었다.

왕궁경관의 일본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 각지의 ?식수의 유행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일청전쟁 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외지의 예를 들면 일로전쟁의 승리기념으로 여순구의 고대에 「부지불식간에 조국의 정신을 빛나게 하기 위한」八重?와 소메이요시노의 수천그루가 심겨진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일본국내에 있어서 ?식수의 역할을 보면 ?森?弘前市の 공간적중심인 弘前성지가 공원으로설치된 후 먼저 풍경미화(풍치)를 위해 소메이요시가 식수되고 이어서 弘前성의 개방과 정비에 의해 津?藩의 현장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藩에서 근대국가일본의 지방도시로 옮겨진 프로세스이다. 1894년경 구사족은 「황궁스럽게도 주인님이 살고 계셨던 성에 ?를 심어 백성과 주민들의 구경거리로 삼는 것은 무례함의 극치이다」라고 서슬퍼렇게 반대했다고 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창경궁은 이왕가박물관이 설치된 후 1909년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이어서 서울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일본열도의 예전에 있던 津藩이 근대일본의 지방도시로 편성된 것과 같이 서울도 또한 근대일본의 지방도시로 편성된 것이다.

근대일본의 지방도시로 포섭된 서울의 신성한 공간은 시민에게 개방되었고 그곳에 설치된 박물관에는 한국의 고고유물과 미술품이 전시되었다. 근대일본은 한국의 전통문화의 관리자로서의 위치로 나타나 한국땅에 군림했다. 예전에 조선왕조의 궁전에 설치된 박물관?미술관은 식민지경영의 장치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 注

①藤田亮作「朝鮮古蹟調査」(?板博士記念?編『古文化の保存と?究』吉川弘文館、1953年)。

②早乙女雅博「新羅の考古?調査「100年」の?究」(『朝鮮史?究?論文集』39、2001年)。

③日韓?合以前에는 宮?府博物館、昌?宮博物館으로 불리워졌으나 ?合後에는 李王家博物館、李王職博物館등으로 불리웠다. 伊東純「李王家博物館開設前後の?況と初期の活動」(『考古?史?究』9、2001年5月)?照。

④『李王家美術館要?』(李王職、1938年)。

⑤小泉?夫「朝鮮博物館見?旅日記」『ドルメン』1933年4月?)。

⑥鄭雲鉉『서울시내 일제유산 답사기』(도서출판 한울、1995年)。

⑦末松熊彦「朝鮮の古美術保護と昌?宮博物館」(『朝鮮及滿洲』69、京城朝鮮?誌社、1913年4月)。

- ⑧李?烈 『잃어버린 朝鮮文化—日本侵略下の 韓?文化財秘話』 (新泉社、1993 年)。
- ⑨『朝鮮日報』 1938 年 3 月 26 日。
- ⑩下郡山誠一「李王家博物館?昌慶苑開設回顧?」?音テ?プ、朝鮮文題?究? 第 13 回 1966 年 5 月 19 日)。
- ⑪金子淳『博物館の政治?』 (?弓社、2001 年)。
- ⑫佐野常民『澳?博??報告書』 (1875 年)。
- ⑬鄭雲鉉『서울 시내 일제유산 답사기』 (前?書)。
- ⑭藤田亮作「朝鮮古蹟調査」 (前?書)。
- ⑮小泉?夫「朝鮮博物館見?旅日記」 (前?書)。
- ?朝鮮?督府博物館『博物館略案?』 (京城、1931 年)。
- ?李成市「?板勝美를 통해서 본 植民地와 ?史?」 (『韓?文化』 23、서울、1999 年)。
- ??板勝美「大同江付近の史蹟」 (『朝鮮彙報』 1916 年 11 月)。
- ?朝鮮?督府朝鮮史編修?「朝鮮史編修?事業?要」 (『朝鮮史』 ?首「目??事業?要」所?、1938 年)。
- ?崔南善「朝鮮?史通俗講話 開題」 『週間 東明』 1-3~2-11、1922 年~1923 年)。
- 小田省吾『??宮史』 (李王職、京城、1938 年)。
- 李美那「李王家??宮日本美術品展示—植民地朝鮮における美術の役割」 (『東アジア/??の近代』 ?岡?立美術館、1999 年)。
- 『朝鮮』 (1933 年 10 月?)。
- 李美那「李王家??宮日本美術品展示—植民地朝鮮における美術の役割」 (前?書)。
- 藤田亮作「朝鮮古蹟調査」 (前?書)。
- ?九玄「??宮石造殿의 日本美術을 보고 (上)」 (『東?日報』 1933 年 11 月 9 日)。
- 高木博志「?とナショナリズム—日???以後のソメイヨシノの植樹」 (西川長夫?渡?公三編『世紀?換期の?際秩序と?民文化の形成』 柏書房、1999 年)。
- 『??で見る弘前市 70 年』 (陸?新報社、1959 年)。